

노동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pp. 57~87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

정인수\*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지역간 노동이동을 분석해 보았다. 대도시와 비대도시에 대한 추정 결과, 대도시 지역은 대기업 출신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자기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기업 프리미엄은 없음을 알려준다. 대도시에 국한할 경우 산업별로 볼 때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에서 지역이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지역간 이동을 중점 지역으로 추출하여 살펴보고 있다. 지역간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으므로 이동비용을 찾아내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추출하였다. 광주 지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아직 저숙련·저임금 유희노동력이 많이 존재하여 부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저임금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업, 신발업에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등 생산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즉, 광주의 저임금 퇴직 노동력이 부산의 저임금 부족 노동력을 매워 주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는 섬유업의 퇴직자가 30%로 주류를 이루어 섬유산업에서의 산업구조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뚜렷하지만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운수업, 기타사회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 지역노동이동, 중점지역, 로짓분석, 대도시, 산업별, 저숙련 노동, 저임금 노동, 생산직, 기능직, 제조업, 서비스업, 섬유업, 유희노동력

투고일: 2004년 2월 2일, 심사의뢰일: 2월 16일, 심사완료일: 2월 23일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jsjeong@kli.re.kr)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경제사회구조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 격차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하달되는 형태를 취하여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가 지역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소홀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인 것도 요인으로 판단된다. 인터넷과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제의 글로벌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연결이라는 방법보다 지역과 지역 간의 상품 결합에 의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예전보다 강해지며 따라서 지역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절실해진다.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대책이 지역의 정보나 사정에 기인하지 않고 수립 실행된 것에 대한 반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실업대책은 전국적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고, 주거, 교통, 사회, 가족연대 등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전국적 실업대책은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지역노동시장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지역간 노동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고용의 특성을 찾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근로자의 지역간 이동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취업할 경우 주소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둘째, 취업 도중에 일어나는 전직이 상이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이다.

셋째, 이직과 재취업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본 연구는 세 번째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같은 이유는 학교 졸업 후 처음 취업시에도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으로 노동이동을 할 수 있으며, 전직시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노동이동이 가능하지만, 취업 도중에 일어나는 전직은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승 및 자회사로의 전직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경우는 정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보다는 퇴직 후 재취업시의 지역간 노동이동이 지역별 경제 및 산업구조 그리고 고용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이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전국을 커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하더라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분석적인 연구보다는 개괄적 연구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닌다.<sup>1)</sup> 류기철(1998), 임정덕(1998), 강병구(2001), 전병유(2000), 홍성우·이건철(1998) 등의 논문이 본 연구에 참고되었다. 중요 논문을 상론하면, 류기철(1998)은 고용보험 DB 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실업자 특성 및 14세로부터 현재 대비 지역이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나,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적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었다. 강병구(2001.10.)는 안산·시흥 지역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설문조사 결과와 워크넷을 이용하여 안산·시흥 지역 수급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안산·시흥 지역에 국한되었다. 전병유(2000)는 고용보험 DB와 구인·구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역시·도 단위의 노동력 수급분석을 하고 있으나 지역구분을 너무 광역으로 한 결과 뚜렷한 지역 특징을 찾아내어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지역간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는 어수봉(1992)과 전병유(2000.9)에서 시도된 적이 있으나 어수봉은 1,354명의 「제조업 종사근로자 고용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지역간 노동이동의 정의를 ‘14세 이전의 주거지와 현 주거지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직업을 위한 지역간 노동이동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병유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1998 / 1999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간 노동이동을 어수봉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지역간 노동이동을 근로자를 직접 추적하여 파악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II. 자료와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고용보험 DB<sup>2)</sup>이다. 지역간 노동이동 분석을 위해서는

- 1) 지역간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임정덕(1998)의 연구에서 지역간 이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지역간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직후 재취업으로의 이동이 아니므로 지역간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연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와는 차별된다. 따라서 기존 문헌에 대한 정리는 지역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2) 고용보험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고용보험동향』 2002년 봄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히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수는 807천 개

우선 개인의 거주지와 경제활동을 비롯한 자료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누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상당히 커서 지역별 분석에 적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데이터는 고용보험 데이터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데이터 중에서 개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업 및 이탈에 대한 현 시점 상황을 나타내는 「원부 데이터」, 피보험자의 사업체 변동에 대한 이력이 누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력 데이터」, 그리고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사업체 데이터」의 세 가지 종류를 통합(merge)한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고용보험 데이터는 2002년 1월말 현재의 자료이다. 원부는 데이터 관측치수가 1,226만 2,048건이며, 이력은 2,777만 3,480건, 사업체는 93만 4,523건이다. 이 중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자로서 취업 시기와 퇴직 시기가 잘 보고되어 있는 775만 6,226명을 분석에 사용한다. 분석대상 관측치에 대한 자료는 <표 1>에 보고하였다.

데이터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표 2>에서 보듯이 금융위기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따라서 2002년 1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30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탈된 근로자로 보고된 경우, 30인 이하 사업체에 취업하였는지 아니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간 것인지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sup>3)</sup> 또한 고용보험 데이터에서 임금이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용보험료 부과가 임금수준에 연동되기 때문이라는 점과 데이터가 개인에 대한 누적 데이터이므로 임금이 최신 수정(update)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데이터상의 임금항목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간 이동 분석의 방법론은 지역을 광역시·도로 나누어 일정 지역에서의 이직후 다른 지역에서의 재취업 근로자 숫자를 횡축과 종축으로 나누어 빈도를 정리하는 통계적 빈도분석과 지역이동의 특징을 살펴보는 로짓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한편 중점 지역을 빈도로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특징을 통계적으로 임금수준, 산업, 직종, 기업 규모 등으로 나누어 이동 전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역이동의 주된 영향변수임을 찾아내고 있다.

이며, 피보험자수는 6,909천 명이다. 같은 시점 전체 취업자수가 21,347천 명, 임금근로자수는 13,625천 명이므로 이들 중 적용대상 근로자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9,724천 명이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의 32.4%, 임금근로자의 50.7%, 적용대상 근로자의 약 71.1%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그런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에서의 퇴직에 대한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실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취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표 1〉 분석대상 관측치수

(단위: 명)

	성 별			학 력 별	
	전 체	남 자	여 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전문대 포함)
전 체	7,756,226	4,716,973	3,039,253	4,002,060	1,222,768
수도권	4,383,993	2,606,054	1,777,939	2,174,614	779,815
비수도권	3,372,229	2,110,915	1,261,314	1,827,444	442,953
대도시	4,816,385	2,870,049	1,946,336	2,370,988	875,669
대도시 이외	2,939,837	1,846,920	1,092,917	1,631,070	347,099
서울	2,653,482	1,506,026	1,147,456	1,209,953	590,506
부산	694,426	426,349	268,077	374,876	88,420
대구	479,214	294,238	184,976	249,642	65,965
인천	398,068	261,493	136,575	222,557	41,499
광주	203,290	128,551	74,739	107,423	35,744
대전	214,825	131,412	83,413	112,210	36,198
울산	173,080	121,980	51,100	94,327	17,337
강원	167,515	107,669	59,846	95,406	21,728
경남	333,168	213,286	119,882	181,172	37,613
경북	298,252	184,920	113,332	164,415	34,311
경기	1,332,443	838,535	493,908	742,104	147,810
전북	209,825	127,215	82,610	117,897	30,374
전남	179,523	122,685	56,838	94,825	29,398
충청	419,111	252,610	166,501	235,251	45,865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 7~2002. 1.

〈표 2〉 고용보험 적용 범위의 변화

보험사업별	적 용 범 위				
	'98. 1. 1 이전	'98. 1.1~2.28	'98.3.1~6.30	'98. 7. 1	'98. 10. 1 이후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중장기발전 세미나 자료집』, 2002, 7.

### Ⅲ. 분석 결과

지역간 노동이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이동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둘째, 지역간 노동이동 유무에 대한 로짓분석, 마지막으로 중점 지역에 대한 상세 분석이다. 지역 구분은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대도시 이외, 서울·부산·대구·광주, 전라·경상 등이다.

#### 1. 지역이동 전국 분석

먼저 전국 지역간 노동이동 패턴이 지역별로 상이한가를 살펴보자. <표 3>은 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퇴직한 지역을 행(row)에 배열하고 재취업한 지역을 열(column)에 나타내어 지역간 노동이동을 살펴본 것이다. 표의 마지막 열은 해당 지역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한 수를 나타내며, 나머지 열들은 지역별 재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표의 둘째 행은 서울에서 퇴직한 사람 수가 108.6만 명이며 이 가운데 9만 명이 부산 지역에 재취업하여 그 비율이 2행 3열에 나타나 있는 8.8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의 마지막 행은 퇴직자의 지역별 재취업 인원을 나타낸다. 예컨대, 전체 퇴직자 가운데 부산 지역으로 재취업한 사람 수는 29.6만 명이 된다.

굵은 활자로 보고한 부분을 보면, 여타 지역과 다른 패턴을 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셀의 광주 전체 퇴직자 수에 대한 비율은 27.0%로 나타나, 여타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광주에서 부산으로의 이동은 22.1%로 여타 지역과 달리 높은 비율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현상이 인천·대구 간, 경남·경기 간, 부산·경기 간, 대구·경기 간에도 나타난다.

지역별 이동패턴의 상이성을 찾기 위하여 지역별 패턴의 동질성 분석에 Chi-Square Test를 해본 결과 카이스퀘어 값이 108915, 자유도 169이므로 유의수준이 0.0001 이하로 나타나, 지역별 노동이동 패턴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재취업시 지역이동한 자, 안한 자, 그리고 퇴직 후 취업으로 포착되지 못한 자의 특성과 산업에 대한 전국적 차이를 평균값과 비율로써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세 가지 그룹에서 연령 및 학력 평균은 모두 35세 전후 및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근속기간과 임금수준-전 직장의 임금수준-

에는 차이를 보인다. 근속기간에 있어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차이가 46개월 내지 47개월과 31개월로 크게 차이가 난다. 임금수준에서는 취업 후 지역이동을 안한 경우가 월 101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지역이동의 경우가 97만원, 미취업의 경우가 83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미취업기간의 경우 취업한 자는 지역이동을 하든 안하든 간에 7개월여가 걸리는 데 비하여 미취업자는 28개월을 보여 장기화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재취업 후 지역이동한 자의 경우 남자 비율이 67%, 이동 안한 자의 비율이 64%로 비슷하나, 미취업은 57%로 미취업자에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산업별 비율은 지역이동자들 중 제조업 비율이 40%로 이동 안한 자들의 30%에 비하여 높다. 반면에 이동 안한 자의 서비스산업 비율이 48%로서 지역이동자들의 3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퇴직 후 미취업자들과 취업자들 간의 산업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

〈표 3〉 재취업시 지역이동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북	전남	충청	관측치수
서울	37.6	8.8	4.9	5.9	2.1	3.0	2.0	2.0	4.0	3.77	16.5	2.5	1.8	5.2	1,086,192
부산	29.2	9.7	5.7	4.5	3.0	2.5	2.4	1.6	4.7	3.73	19.9	2.3	2.4	8.4	288,404
대구	33.2	9.2	4.3	3.9	2.1	2.6	2.6	1.9	5.7	3.57	19.7	2.9	2.0	6.4	231,394
인천	34.9	7.2	11.4	6.1	1.2	3.2	1.4	1.6	4.2	3.56	17.1	2.2	1.5	4.6	177,592
광주	27.0	22.1	5.0	3.3	1.6	2.0	3.5	1.6	8.2	2.26	14.7	2.0	2.5	4.1	75,823
대전	38.8	6.3	5.5	5.4	2.3	2.2	2.0	1.7	4.2	3.41	16.6	2.1	4.6	5.0	79,430
울산	34.2	10.4	5.1	11.0	1.7	1.7	1.8	2.0	4.3	4.95	12.9	2.5	3.2	4.2	78,099
강원	33.6	9.4	8.7	4.4	2.3	2.4	3.0	1.6	4.7	3.69	15.3	2.0	3.8	5.3	62,765
경남	29.7	7.4	11.8	3.8	2.1	2.1	2.2	1.6	3.5	3.06	23.2	2.1	1.9	5.7	141,910
경북	34.1	6.8	6.3	6.1	2.3	2.2	2.4	1.8	3.7	7.85	14.4	3.2	2.3	6.5	130,139
경기	32.1	9.0	7.2	4.8	2.9	2.4	3.4	2.3	4.6	4.18	17.9	2.3	1.8	5.1	562,561
전북	39.0	11.1	5.4	3.8	1.6	1.8	1.9	2.3	4.6	3.72	15.6	2.3	2.1	4.8	75,837
전남	32.6	9.1	7.2	5.3	5.6	2.5	2.5	2.5	4.5	4.17	14.0	3.1	1.9	4.9	67,422
충청	30.6	10.1	11.0	4.8	2.6	2.2	2.0	1.4	4.7	3.49	18.0	2.3	2.5	4.5	175,722
관측치수	1,103,301	296,263	211,513	169,320	75,719	83,508	76,582	62,499	143,966	126,797	560,617	78,469	67,622	177,114	3,233,290

주: Chi-Square Test 값 : 108915, 자유도:169, 유의수준 <.0001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 7~2002. 1.

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별로 볼 때는 재취업으로 지역이동한 자들의 경우에 생산직이 51.6%로 여타의 경우보다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 생산직의 지역이동이 뚜렷하다. 재취업 후 지역이동을 안한 자들은 사무·판매직이 42%로 여타의 30% 수준보다 약 10%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 출신 여부 변수를 보면, 퇴직 후 미취업의 경우 대기업 출신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재취업 후 지역이동하지 않은 자들이 28%, 지역이동한 자들은 19%로 지역이동자들은 대기업 출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4〉 설명변수의 평균값 및 관측치수

변수	재취업후 지역이동한 경우			재취업후 지역이동 안한 경우			퇴직후 취업으로 포착되지 못한 경우		
	관측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관측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관측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연령(년)	2,077,790	35.7	10.3	453,608	35.5	10.4	5,224,828	36.8	11.4
교육연수(년)	2,077,773	12.5	2.1	453,606	12.8	2.2	5,223,815	12.2	2.3
근속기간(월)	2,077,790	46.6	59.3	453,608	47.2	52.4	5,224,828	31.4	59.2
실업기간(월)	2,077,790	7.2	8.1	453,608	7.0	8.0	5,224,828	28.8	21.1
임금수준(원)	2,077,790	970,158.6	1,175,343.0	453,608	1,014,159.2	1,422,842.3	5,224,828	834,196.4	1,110,438.9
	관측치수	비율		관측치수	비율		관측치수	비율	
성별(남자)	1,402,896	67.5		290,620	64.1		3,023,457	57.9	
산업 1(농업)	15,762	0.8		1,855	0.4		37,335	0.7	
산업 2(제조업)	804,459	40.9		131,447	30.4		2,034,630	40.3	
산업 3(전기·가스·수도)	187,322	9.5		26,641	6.2		381,129	7.5	
산업 4(도소매·음식·숙박업)	232,265	11.8		63,055	14.6		757,200	15.0	
산업 5(서비스)	725,267	36.9		209,340	48.4		1,841,221	36.5	
직종 1(생산직)	1,071,088	51.6		180,744	39.9		2,052,874	39.3	
직종 2(사무·판매)	640,845	30.8		194,215	42.8		1,593,354	30.5	
직종 3(관리직)	353,845	17.0		76,813	16.9		589,922	11.3	
직종 4(농업)	12,012	0.6		1,836	0.4		988,678	18.9	
대기업 출신	405,835	19.5		130,992	28.9		1,650,948	31.6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7~2002.1.



평균값과 빈도 비율로 분석한 세 가지 그룹의 차이를 종합하면, 제조업·생산직·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남자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지역이동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고 임금도 낮은 대기업 퇴직자의 미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난다.

## 2. 지역이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추정 결과

이제 지역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지역이동을 하였을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한 ‘지역이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추정을 하기로 한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로 구분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표 5> 로짓추정 결과(종속변수: 지역이동=1, 이동없음=0)

전 체			
변수명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p값
상수항	4.5242	1.006	<.0001
연령	0.0064	1	<.0001
연령 2	-0.0001	0.96	<.0001
학력 2	-0.0406	1	<.0001
근속기간	0.0003	0.917	<.0001
성별	-0.0866	0.882	<.0001
ln임금수준	-0.1251	0.562	<.0001
대기업 출신	-0.5768	0.971	<.0001
산업 2(제조업)	-0.0298	1.405	0.0001
산업 3(전기·가스·수도)	0.3399	0.754	<.0001
산업 4(도소매·음식)	-0.2819	0.65	<.0001
산업 5(서비스업)	-0.4312	0.833	<.0001
직종 1(생산직)	-0.1828	0.534	<.0001
직종 2(사무·판매)	-0.6266	0.694	<.0001
직종 3(관리직)	-0.3655	0.694	<.0001
지역이동		207,714	
이동 없음		453,014	
-2 Log L		2378062.	

먼저 전국 추정 결과를 <표 5>를 통해 설명하면, 연령과 학력이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근속기간은 승산비<sup>4)</sup> 추정계수(odds ratio estimate)가 0.917로 나타나  $1-0.917=0.083$ 로서 근속기간이 1개월 길어질수록 8.3%만큼 지역이동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속은 비록 효과는 크지 않지만 지역이동을 하지 않는 경향임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성을 해석하면 남성이 12%만큼 지역이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임금이 높을수록 44%만큼, 대기업 출신일수록 3%만큼 지역이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지역이동 경향은 농업에 비하여 40% 높게 나타났으나 전기·가스·수도, 도소매·음식·숙박, 서비스업의 지역이동 경향은 각각 25%, 35%, 17%만큼 낮게 나타난다. 직종별로는 농업직의 이동 경향이 여타 직종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여타 직종 중에서는 생산직의 지역이동 경향이 사무·판매직이나 관리직에 비하여 16%만큼 낮게 나타난다.

<표 6>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sup>5)</sup>의 지역이동 경향에 대한 차이는 대기업 출신이나 아니냐에서 크게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수도권에서는 대기업 출신의 경우 지역이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중소기업 출신보다 41% 높게 나타남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업 출신이 27%만큼 지역이동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해석하면 수도권 대기업 출신 퇴직자의 경우 숙련형성에 대한 신뢰도, 취업정보 취득기회 등의 면에서 중소기업 출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타지역으로 취업을 모색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업 출신이 중소기업 출신보다 숙련 및 대기업에서 파악한 정보 등의 면에서 취업이 유리하므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으로 지역이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파악되는 피상적 현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출신의 구분이 지역이동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의 구분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노동수요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든 대기업의 프리미엄

4) 로짓함수의 특성상 승산비(odds ratio)로서 설명변수의 추정치를 해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승산비는 1을 기준으로 설명변수의 추정계수 효과를 파악한다. 다른 설명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승산비의 추정계수에서 1을 뺀 값이 플러스이면 설명변수 1단위 증가가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마이너스이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지역이동이란 <표 3>에서처럼 14개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이들 14개 지역사이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시 지역이동 경향에 대한 차이 분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이동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내에서의 지역이동과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지역이동 차이를 비교한다.

〈표 6〉 지역별 로짓추정 결과

변수명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대도시이외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상수항	0.5757*		1.7356*	-	3.8097*	-	4.1596*	-
연령	0.0061*	1.006	-0.0050	0.095	0.0058*	1.006	0.0182*	1.018
연령 2	-0.0001*	1	0.0000*	1	-0.0001*	1	-0.0002*	1
학력 2	-0.0283*	0.972	0.0086*	1.009	-0.0406*	0.96	0.0030	1.003
근속기간	0.0000	1	0.0001	1	0.0003*	1	0.0000	1
성별	-0.0477*	0.953	0.0530*	1.054	-0.0698*	0.933	-0.0740*	0.929
ln임금수준	0.0399*	1.041	0.0565*	1.058	-0.0761*	0.927	-0.1708*	0.843
대기업 출신	-0.5282*	0.59	0.2412*	1.273	-0.6627*	0.515	-0.0259*	0.974
산업 2	0.1595*	1.173	-0.1916*	0.826	0.0773*	1.08	-0.3367*	0.714
산업 3	0.2701*	1.31	-0.0666*	0.936	0.3083*	1.361	0.0588*	1.061
산업 4	-0.0332*	0.967	-0.1023*	0.903	-0.1819*	0.834	-0.1728*	0.841
산업 5	-0.1366*	0.872	-0.1581*	0.854	-0.3107*	0.733	-0.3487*	0.706
직종 1	0.4621*	1.587	0.5663*	1.762	-0.3736*	0.688	0.2402*	1.271
직종 2	0.1991*	1.22	0.4990*	1.647	-0.8570*	0.424	0.2025*	1.224
직종 3	0.3103*	1.364	0.5365*	1.71	-0.6466*	0.524	0.2495*	1.283
지역이동	102,961		104,753		122,405		853,093	
이동 없음	398,653		54,361		352,659		100,355	
-2 Log L	1691401.8		433154.51		1676078.2		641628.4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7~2002.1.

은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다. 직종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생산직의 이동경향이 서비스 및 관리직보다 36%, 22% 정도 각각 높게 나타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생산직과 여타 직종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차이는, 먼저 대기업 출신 여부의 지역이동 경향에 차이가 있다. 대도시에서 대기업 출신의 지역이동은 중소기업 출신에 비하여 48%가 낮다. 그러나 대도시 이외에서는 대기업 출신의 지역이동 경향이 중소기업과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산업별로 볼 때 대도시의 경우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이 비교산업인 농업에 비하여 각각 8%, 36% 지역이동이 강함을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제조업의 경우, 대도시에서 제조업 내의 중분류 산업간의 구조변화가 강하게 일어나므로 산업

〈표 7〉 2001년 지역별 노동 및 산업관련 지수

(단위: %)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제조업 중사자비율	서비스업 중사자비율	대기업 중사자비율	산업구조 변화지수 $\sigma_t$	어음 부도율	노조조직률
		2000	2001						
서울	61.6	4.8	4.5	18.4	73.6	21.6	2.6	0.3	11.6
부산	58.4	6.4	5.2	22.4	68.4	13.4	2.8	0.3	14.7
대구	58.8	4.6	4.5	24.6	65.2	11.9	2.4	0.4	11.5
인천	60.9	5.0	4.2	30.3	60.6	21.7	2.3	0.3	36.1
광주	55.9	5.6	4.5	12.4	72.2	22.0	2.0	0.3	8.3
대전	58.1	4.3	3.9	13.7	74.7	18.3	2.1	0.1	10.8
울산	59.7	3.6	2.9	38.6	51.1	44.8	2.5	0.1	-
경기	61.3	3.7	3.4	23.0	64.4	20.0	2.6	0.2	10.2
강원	57.7	2.5	2.4	8.8	61.3	10.1	2.7	0.2	10.8
충북	59.2	3.0	2.8	20.2	52.1	15.5	2.6	0.2	9.1
충남	62.9	2.3	2.3	14.8	45.5	18.1	2.5	0.2	-
전북	58.7	3.0	2.9	12.6	53.5	19.6	2.7	0.4	9.8
전남	64.0	3.0	2.7	9.0	49.0	15.5	2.6	0.3	-
경북	64.6	2.9	2.3	16.5	48.4	30.8	2.3	0.2	11.2
경남	60.7	3.3	3.4	23.1	54.7	24.4	2.5	0.4	-

주: 1) 어음부도율은 금융위기시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함.

2) 노조조직률은 노동부 보도자료, 「노동조합조직률」, 2002년 10월 18일자에서 나타난 2001년 지역별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전국조직률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것임. ‘-’은 남북을 통합한 숫자임. 그리고 울산은 경남북에 통합되어 계산되어 있음.

3) 산업구조변화지수  $\sigma_t$ : Lilien, David M., J.P.E. 90(Aug.1982): 777-93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노동부, 『임금구조기초통계조사』, 2001.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11, 공보 2002, 11-25호.

구조 변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sup>6)</sup>(표 7), 전기·가스·수도업은 최근 이들 산업에서의 공기업의 민영화 움직임에 따른 내부적 구조조정과 이 부문의 민간부문에 경쟁기업이 생김으로 인하여 재취업시 지역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6) 예를 들어 <표 7>을 살펴보면, 부산의 산업구조 변화지수는 신발산업의 붕괴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전국 최고치(2.8)를 나타내고 있다.

는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이 농업에 비하여 지역이동이 3%, 29%만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도시에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의 취업시 지역이동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비하여 아주 강한 반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이 지역이동에서 도소매 및 서비스업과 큰 차이가 없다. 직종별로는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간 차이가 강하게 나타난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직의 이동 경향이 생산직, 사무·판매직, 관리직보다는 30~50% 높게 나타난 반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업직이 여타 직종에 비하여 25% 정도 지역이동 경향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 예상과는 정반대의 경향이라 볼 수 있는데, 고용보험 데이터에 수록되는 자는 기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자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비록 농·어업에 관련된 산업이나 직종일지라도 대도시에서 기업체가 많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농업종사자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4대 도시에 대한 로짓추정 결과가 <표 8>에 보고되어 있다. 4대 도시 모두에서 연령, 학력, 근속기간이 지역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뚜렷한 차이는 없다. 성별로도 큰 차이가 없지만 남자의 지역이동 경향이 여자에 비하여 아주 미미한 정도로 높다. 대구에서는 여성의 지역이동이 남성보다 각각 5% 정도 높게 나타난다.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 지역이동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다. 대구 지역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 지역이동이 13% 정도 감소한다. 즉 임금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 여부의 지역이동 영향은 4대 도시간 차이가 크다. 서울은 대기업 출신이 지역이동에 40% 정도 부정적인 반면,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대기업 출신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각각 33%, 71%, 38% 높게 나타난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대기업 출신의 지역이동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지역에서 금융위기 기간의 실업률이 높았고, 실업탈출확률에서도 평균 실업기간이 가장 긴 지역들이라는 발견과 무관하지 않다(정인수, 2002. 9).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광주에서 제조업 출신의 지역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지역이동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강하다. 대구에서는 산업별 지역이동 경향은 큰 차이가 없지만 농업을 제외한다면 제조업의 이동경향이 강하다. 서울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에서의 지역이동이 강한데, 이는 이 산업에서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내부적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반영하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직종별)로는 서울에서는 생산직이 사무·판매직이나 관리직에 비하여 지역이동 경향

이 10% 정도 높게 나타나 직종간 차이가 제법 큰 데 비하여, 대구와 광주는 생산직의 이동 경향이 약간 높으나 차이가 미미하며, 부산은 사무·판매직의 이동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차이는 미미하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의 경우 사무직의 고용안정성이 생산직에 비하여 높다는 일반적 경향과 배치된다. 이를 해석하면, 부산 지역은 경기불황이 심화되어 사무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회사 전체가 도산되어 일어나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산의 산업구조변화지수가 전국 도시 중 가장 높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표 8> 로짓추정 결과(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변수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상수항	-0.0669*	-	0.5592*	-	5.1896	-	3.3553	
연령	0.00638*	1.006	-0.0171*	0.983	-0.0126	0.987	-0.0225	0.978
연령 2	-0.00009*	1	0.0002*	1	0.0002	1	0.0003	1.000
학력 2	-0.00737*	0.993	0.0204*	1.021	0.0046	1.005	0.0118	1.012
근속기간	-0.00015*	1	0.0002*	1	0.0002	1	-0.0001	1.000
성별	0.0182*	1.018	0.0954*	1.1	-0.0457	0.955	0.1097	1.116
ln임금수준	0.0636*	1.066	0.1226*	1.13	-0.1309*	0.877	0.0314	1.032
대기업 출신	-0.5023*	0.605	0.2902*	1.337	0.5391*	1.714	0.3313	1.393
산업 2	-0.3396*	0.712	0.1346*	1.144	-0.1004	0.905	0.2245	1.252
산업 3	0.0212	1.021	-0.2669*	0.766	-0.2914	0.747	-0.0260	0.974
산업 4	-0.1044*	0.901	0.0867*	1.091	-0.3634*	0.695	-0.0239	0.976
산업 5	-0.1591*	0.853	0.0275	1.028	-0.3607*	0.697	0.2852	1.330
직종 1	0.1414*	1.152	-0.1431*	0.867	0.0401	1.041	0.2035	1.226
직종 2	0.0591	1.061	-0.1002*	0.905	-0.0082	0.992	0.1160	1.123
직종 3	0.0776	1.081	-0.1241*	0.883	0.0800	1.083	-	-
지역이동	540,866		202,420		169,345		58,543	
이동 없음	310,750		21,969		7,823		1,021	
-2 Log L	1117630.9		143814.13		64111.364		10327.719	

7) 앞으로의 직종간 차이 분석은 농업을 제외하고 생산직, 사무·판매직, 관리직의 추정계수간 차이로서 직종간 비교를 보고한다.

〈표 8〉의 계속

변수명	전 남		전 북		경 남		경 북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추정치	odds ratio estimates
상수항	11.0391*	-	-1.8287	-	3.2455*	-	-2.5096*	-
연령	0.0121	1.012	-0.0343	0.966	0.0674*	1.07	-0.019*	0.981
연령 2	-0.0001	1	0.0004	1	-0.00057*	0.999	0.0001	1
학력 2	-0.0151	0.985	-0.0002	1	-0.0136	0.986	0.0008	1.001
근속기간	0.0008	1.001	0.0001	1	0.000327	1	-0.0004	1
성	-0.3675*	0.692	-0.1416*	0.868	0.0752*	1.078	0.4405*	1.553
ln임금수준	-0.4643*	0.629	0.3984*	1.489	-0.1568*	0.855	0.4027*	1.496
대기업 출신	0.4232*	1.527	-0.1092	0.897	0.5852*	1.795	-0.3535*	0.702
산업 2	0.1561	1.169	0.2576*	1.294	0.435*	1.545	-0.84*	0.432
산업 3	-0.3361*	0.715	0.4842*	1.623	0.3298*	1.391	-0.1355	0.873
산업 4	-0.284*	0.753	0.9256*	2.524	0.4234*	1.527	-0.4313*	0.65
산업 5	-0.2107	0.81	0.639*	1.895	0.4629*	1.589	-0.8703*	0.419
직종 1	-0.4882	0.614	0.8279	2.288	0.201	1.223	0.4583	1.581
직종 2	-0.2851	0.752	0.5573	1.746	0.0462	1.047	0.2813	1.325
직종 3	-0.4862	0.615	0.6634	1.941	0.0683	1.071	0.2482	1.282
지역이동	53,380		57,992		107,672		95,310	
이동 없음	1,110		1,349		4,082		7,230	
-2 Log L	10841.152		12876.1		35033.546		52285.918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7~2002.1.

4대 도시에 대한 로짓분석을 소결하면, 서울 지역은 전기·가스·수도업, 생산직 및 관리직에서의 지역이동이 강하다.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제조업의 지역이동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직종별로 대구, 광주 지역은 생산직에서의 지역이동이 강한 반면, 부산은 사무직이 강하다는 특색을 보인다. 이는 정인수(2002. 9)의 실업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이들 두 지역에서 섬유, 신발 등 제조업 내 중분류 산업간의 구조변화가 부산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도산 구조조정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이고, 대구 지역에서는 섬유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중소기업에서의 도산 및 구조조정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두 도시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및 도산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직의 지역이동을 감수한 취업 노력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추측케 한다.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서비스업, 여성, 임금수준이 낮은 자들의 지역이동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금융위기시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도산도 함께 수반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서비스업 종사 저임금 직종의 여성들이 취업을 위하여 지역이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저임금 여성 서비스직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정보 제공 등의 정책이 이들 지역에 각별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구 지역의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의 지역이동 경향도 똑 같은 맥락에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4개 도에서 나타난 지역이동의 특징은 경북과 전남의 경우, 농업부문 종사자의 지역이동이 강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이동도 강하다. 전남의 경우 임금수준을 볼 때 전라 지역은 80만원대로서 가장 낮은데, 결국 저임금 사무직이 특별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인문계 고졸 학력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남 지역에서의 사무직 출신에 대한 직업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3. 중점 지역 분석

#### 가. 중점 지역의 선정

중점 지역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4개 지역간의 노동이동 빈도 수에서 전체 지역이동자 수의 가중치<sup>8)</sup>를 찾아내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예를 들어 2행 3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동 비율이 3.0%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를 통해 지역별 순유입을 먼저 구하였는데, 서울과 부산 간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순유입이 0.4(3.0-2.6)로 나타난다(부표 1). 그러나 이 절대치는 지역간 순유입의 크기만 나타낸 것이므로 전국적 비교는 곤란하기 때문에<sup>9)</sup>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유입된 비율을 지역의 노동력 수로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부표 2).

전국의 순유입 비율을 그 지역의 노동력 수로 표준화한 뒤 이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각각의 셀을 전국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유의도 0.05에서 검정하였다. 그 검정된 t값이 <표 9>의 각 셀의 하단에 보고되어 있다. 0.05 유의도에 검정 결과 순유입 및 유출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의한 지역을 순서대로 보고 하면, 먼저 순유입은 광주 → 부산, 대구 → 서울, 울산 → 인천, 울산 → 서울, 인천 → 대구, 경남 → 경기의 순으로 나타난다. 순유출은 울산 → 경기, 광주 → 경기, 강원 → 경기, 대구 → 인천의 순으로 나타난다.

8) 가중치란 14×14개 셀 각각에 속하는 빈도 수의 전체 이동자 수에 대한 비중이다.

9)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취업자 수가 많으므로 그 중 아주 작은 일부만 강원도로 옮겨더라도 강원도에는 초과 유입이 나타날 수 있다.



〈표 9〉 지역별 노동이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북	전남	충청	계(出)
서울	12.6 (-0.01)	3.0 (0.47)	1.7 (-0.96)	2.0 (0.06)	0.7 (0.07)	1.0 (0.05)	0.7 (-0.23)	0.7 (0.03)	1.4 (0.06)	1.3 (-0.15)	5.5 (-0.09)	0.9 (-0.09)	0.6 (-0.10)	1.7 (0.08)	33.6
부산	2.6 (-1.82*)	0.9 (-0.01)	0.5 (-0.73)	0.4 (0.00)	0.3 (-1.27)	0.2 (0.35)	0.2 (-0.18)	0.1 (-0.20)	0.4 (0.47)	0.3 (0.28)	1.8 (1.01)	0.2 (0.31*)	0.2 (0.10)	0.8 (0.99)	8.9
대구	2.4 (4.48**)	0.7 (0.89)	0.3 (-0.01)	0.3 (-2.16**)	0.2 (0.22)	0.2 (0.33)	0.2 (0.39)	0.1 (-0.23)	0.4 (-0.68)	0.3 (0.00)	1.4 (0.98)	0.2 (0.48)	0.1 (-0.05)	0.5 (-0.88)	7.2
인천	1.9 (-0.42)	0.4 (-0.02)	0.6 (2.80**)	0.3 (-0.01)	0.1 (-0.10)	0.2 (0.34)	0.1 (-1.53)	0.1 (0.02)	0.2 (0.53)	0.2 (-0.40)	0.9 (0.81)	0.1 (0.23)	0.1 (-0.24)	0.3 (-0.03)	5.5
광주	0.6 (-1.15)	0.5 (4.81**)	0.1 (-0.70)	0.1 (0.20)	0.0 (-0.01)	0.1 (-0.16)	0.1 (0.78)	0.0 (-0.12)	0.2 (1.88*)	0.1 (-0.77)	0.3 (-3.04**)	0.1 (0.20)	0.1 (-1.13)	0.1 (-0.81)	2.4
대전	1.0 (-0.81)	0.2 (-1.30)	0.1 (-0.99)	0.1 (-0.77)	0.1 (0.14)	0.1 (-0.01)	0.1 (0.12)	0.0 (-0.10)	0.10 (0.21)	0.1 (-0.10)	0.4 (-0.14)	0.1 (0.16)	0.1 (1.12)	0.1 (0.10)	2.5
울산	0.8 (3.13**)	0.3 (0.62)	0.1 (-1.20)	0.3 (3.46**)	0.0 (-0.77)	0.0 (-0.14)	0.0 (-0.01)	0.1 (-0.19)	0.1 (0.14)	0.1 (0.36)	0.3 (-5.30**)	0.1 (0.27)	0.1 (0.48)	0.1 (-0.12)	2.4
강원	0.7 (-0.68)	0.2 (0.89)	0.2 (0.82)	0.1 (-0.08)	0.0 (0.13)	0.1 (0.11)	0.1 (0.22)	0.0 (-0.01)	0.1 (0.50)	0.1 (-0.01)	0.3 (-2.52**)	0.0 (-0.38)	0.1 (0.48)	0.1 (0.64)	1.9
경남	1.3 (-0.49)	0.3 (-0.98)	0.5 (1.10)	0.2 (-0.68)	0.1 (-1.02)	0.1 (-0.13)	0.1 (-0.09)	0.1 (-0.23)	0.2 (-0.01)	0.1 (-0.17)	1.0 (2.25**)	0.1 (-0.19)	0.1 (-0.10)	0.3 (-0.04)	4.4
경북	1.4 (1.16)	0.3 (-0.65)	0.3 (-0.02)	0.2 (0.53)	0.1 (0.44)	0.1 (0.05)	0.1 (-0.23)	0.1 (-0.01)	0.2 (0.17)	0.3 (-0.01)	0.6 (-1.67*)	0.1 (0.47)	0.1 (0.05)	0.3 (0.77)	4.0
경기	5.6 (0.14)	1.6 (-0.53)	1.3 (-0.41)	0.8 (-0.27)	0.5 (0.40)	0.4 (0.01)	0.6 (0.73)	0.4 (0.27)	0.8 (-0.58)	0.7 (0.38)	3.1 (-0.01)	0.4 (0.06)	0.3 (0.06)	0.9 (-0.22)	17.4
전북	0.9 (1.23)	0.3 (1.14)	0.1 (-1.50)	0.1 (-0.56)	0.0 (-0.22)	0.0 (-0.18)	0.1 (-0.29)	0.1 (0.30)	0.1 (0.34)	0.1 (-0.83)	0.4 (-0.54)	0.1 (-0.01)	0.1 (-0.31)	0.1 (-0.24)	2.4
전남	0.7 (1.54)	0.2 (-0.48)	0.2 (0.14)	0.1 (0.59)	0.1 (1.26)	0.1 (-1.34)	0.1 (-0.57)	0.1 (-0.46)	0.1 (0.19)	0.1 (-0.12)	0.3 (-0.61)	0.1 (0.34)	0.0 (-0.01)	0.1 (-0.72)	2.1
충청	1.7 (-0.54)	0.6 (-1.64)	0.6 (1.15)	0.3 (0.02)	0.1 (0.34)	0.1 (-0.06)	0.1 (0.04)	0.1 (-0.24)	0.3 (0.02)	0.2 (-0.58)	1.0 (0.69)	0.1 (0.09)	0.1 (0.26)	0.3 (-0.01)	5.4
계(入)	34.1	9.2	6.6	5.2	2.3	2.6	2.4	1.9	4.5	3.9	17.3	2.4	2.1	5.5	100.0

주: 1)\*는 유의수준 10% 이내, \*\*는 유의수준 5%이내를 뜻함.

2) ( )는 지역간 순유출입의 크기를 지역별 노동력의 크기로 표준화한 수치의 t값임.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7~2002.1.

그런데 순유출은 해석에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표준화가 퇴직한 지역의 노동력을 모수로 수행된 것이므로 순유출의 순위 1번인 울산 → 경기는 울산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로부터 유입되는 취업자 수가 울산의 입장에서 전국 각 지역에 비하여 아주 유의하다는 것이지, 경기로서는 울산으로 유출되는 근로자 수가 경기 전체의 노동력으로 볼 때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출신 지역의 입장에서 분석해야 하며, 따라서 분석은 순유입의 경우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순유입의 유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광주-부산, 대구-서울, 울산-인천, 울산-서울, 인

천-대구, 경남-경기의 6개 지역이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나. 중점 지역 특성

<표 10>을 중심으로 중점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에서는 지역이동 그룹 전체의 평균이 98만원인 데 비하여 중점 지역 6개 전 지역의 이동전 임금수준이 평균에 비하여 낮다. 이 중 광주는 평균임금이 86만원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산업을 보면 지역이동 전체에 비하여 광주를 제외한 5개 지역은 제조업 출신이 평균보다 높다. 지역이동 전체를 보면 제조업 출신이 41%, 서비스업이 36%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광주는 제조업 31%, 서비스업 45%로 제조업이 적고 서비스업이 많음에 비하여 다른 중점 지역은 제조업이 4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울산, 대구, 인천, 경남에서 인천, 대구, 경기로 옮긴 근로자들은 제조업 출신이 60% 가까이 나타난다. 직종별로도 중점 지역은 특색을 보인다. 지역이동자 전체의 생산직 비중이 48%임에 비하여 광주는 45%로 조금 낮으나, 여타 중점지역 5개에서는 생산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는 독특하여 서비스직 출신도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동 전과 지역이동 후의 개별근로자의 특성과 산업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으로 지역이동한 그룹 전체로는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후 임금수준이 더 낮아졌다(98만원→97만원)는 특징을 보인다<sup>10)</sup>. 지역별 이동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어디에서 이동을 하던 이동 후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면 임금수준이 이동 전에 비하여 5만~10만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이 아닌 부산, 대구 지역으로의 이동은 임금수준이 이동 전에 비하여 낮아진다는 특색을 보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노동수요의 차이가 극명함을 보여준다.

중점 지역에서의 지역이동 자들의 산업간 이동 또한 극심함을 보여주며 지역별로 이동 과정에서의 산업간 변화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산업이동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두드러진다. 광주에서 부산, 울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 제조업으로의 유입이 이동 전에 비하여 20%

10) 지역이동한 그룹은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임을 보이는데 이 연구의 분석에 고용보험 데이터 1995년 7월부터 2002년 1월 말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00년도 평균임금수준, 전산업 167만원, 제조업 157만원, 1997년 전산업 146만원, 제조업 132만원 등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데이터의 임금항목은 고용보험료를 적게 내리는 이유 등으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퇴직자의 임금은 특히 오래된 임금 보고가 그대로 존치된 경우도 많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임금수준의 지역별 차이 및 추세는 옳다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표 10〉 지역이동 전후 비교

(단위: 원, %)

임금	취업으로 지역이동		광주 → 부산		대구 → 서울	
	983,985.9 (1011539.61)	970,158 (1175343.0)	862,912.9 (515360.0)	858,058 (499918.0)	898,791.9 (514938.4)	1,045,848 (1288158)
산업 1(농업)	0.7	0.8	0.1	1.6	0.3	0.2
산업 2(제조업)	41.9	40.9	31.0	51.9	58.7	14.4
산업 3(전기·가스)	9.0	9.5	9.3	4.2	7.3	4.1
산업 4(도소매·음식·숙박업)	12.5	11.8	14.5	8.7	7.8	17.7
산업 5(서비스)	35.9	36.9	45.2	33.6	25.9	63.6
직종 1(생산직)	48.2	51.6	44.8	62.0	64.2	34.5
직종 2(사무·판매)	32.9	30.8	32.6	21.0	22.0	47.3
직종 3(관리직)	18.5	17.0	22.5	14.8	13.7	18.2
직종 4(농업)	0.5	0.6	0.1	2.3	0.1	0.1
대기업 출신	21.2	19.5	28.2	19.8	11.0	17.7

임금	울산 → 인천		울산 → 서울		인천 → 대구		경남 → 경기	
	884,533 (542355)	931,121 (1089172)	960,214 (485168)	1,071,826 (2114821)	942,174 (545613)	873,746.1 (499726.5)	917,839 (703583)	961,409.6 (1370194)
산업 1(농업)	0.9	0.0	0.2	0.2	0.3	0.1	0.8	0.2
산업 2(제조업)	52.9	70.5	48.6	17.6	62.6	61.2	61.3	58.7
산업 3(전기·가스)	6.4	5.3	13.7	4.5	3.7	7.1	6.5	7.0
산업 4(도소매·음식·숙박업)	6.0	5.1	6.6	18.5	7.2	4.9	7.4	6.3
산업 5(서비스)	33.7	19.2	31.0	59.2	26.3	26.7	24.0	27.8
직종 1(생산직)	67.3	63.7	66.6	32.8	54.1	64.7	65.3	60.6
직종 2(사무·판매)	19.4	25.6	18.3	49.5	31.4	22.6	21.1	24.7
직종 3(관리직)	13.1	10.8	15.1	17.7	14.5	12.7	13.5	14.7
직종 4(농업)	0.2	0.0	0.0	0.0	0.1	0.0	0.2	0.1
대기업 출신	25.9	12.7	27.5	36.9	19.6	8.2	20.4	16.4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7~2002.1.

정도 높아진다. 그러나 대구에서 서울, 울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30% 정도 나타나, 제조업에서 퇴직당한 저임금 근로자들이 서울의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대구에서 서울의 경우, 제조업에서 퇴직이 58%이었지만 서울로의 이동 후 제조업에는 14%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이동하는 대구 근로자는 1/4만 제조업에 남고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직종은 산업이동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대 중점 지역 중 서울로 이동하는 자들은 생산직에서 사무·판매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경우, 생산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무·판매직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부산으로의 제조업 유입과 연관된 것이다. 인천, 울산, 대구, 경기, 경남 간의 이동은 산업이나 직종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주로 제조업 생산직의 이동이 서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규모간 이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동한 자는 대기업 출신 비율이 21%로부터 19%로 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동 후 지역이 어디이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서울로 이동의 경우 대기업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나머지 지역으로의 이동의 경우 대기업 출신 비율이 5~1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이동이 중소기업으로의 이동임을 알 수 있다.

## 다. 중점 지역 산업중분류간 이동에 나타난 특징

여기서는 산업중분류 업종간 이동을 분석한다.<sup>11)</sup> <표 11>에서 지역이동 그룹의 중분류 산업간 이동을 횡축을 이동 전, 종축을 이동 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산업간 이동의 빈도 수를 표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빈도 수의 횡 %(row-percent)를 보고하고 있다. 횡축의 합이 이동 전 산업별 비율이며, 각 행의 마지막 열에 합계로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종축의 합이 이동 후 산업별 비율인데 각 종의 마지막 행에 보고되어 있다.

각 산업으로부터의 취업시 이동하는 산업은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산업의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을 먼저 찾아봄으로써 그 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일반적인 분산비율을 넘어서는가 아니면 특히 어느 특정 산업으로는 이동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 각 이동 후 산업의 각 열(column)의 맨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전체(합계)가 그 산업의 전체 산업에 대한 평균적인 취업비율을 나타낸다.

11) 산업대분류간 이동은 제조업 중분류간의 이동을 상쇄해 버리므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의 업종간 이동을 정밀하게 포착해 내기가 어렵다.

〈표 11〉 산업간 이동 : 전체

	농림광	음식	석유	신발	목재	출판	화학	조립 금속	기계	가구	전기	건설	도소매	숙박	운수	통신	금융부	정보 임대	사회서	공공	보건	기타비	가사	전체
농림광	0.8	0.7	5.3	0.6	0.6	2.1	3.6	5.8	14.9	1.2	0.2	12.5	9.1	2.2	7.9	1.7	6.4	3.0	13.4	5.4	2.4	0.4	0.0	0.7
음식	2.0	5.1	6.5	1.1	1.1	1.1	3.6	4.3	16.2	0.9	0.1	11.0	8.5	1.9	8.9	0.9	4.0	4.5	12.3	2.8	3.0	0.3	0.0	2.5
석유	0.7	2.5	6.5	0.8	1.2	1.5	3.3	5.3	14.6	1.1	0.1	13.1	8.5	1.7	11.2	0.5	4.5	3.2	13.1	3.4	3.0	0.4	0.0	6.2
신발	1.7	2.1	7.9	0.5	1.3	1.1	3.5	6.5	16.6	0.9	0.3	11.6	9.1	1.8	8.5	0.3	6.2	3.5	11.2	2.3	2.7	0.5	0.0	1.0
목재	0.9	2.2	7.0	1.2	1.5	1.5	3.0	5.0	14.2	1.2	0.1	14.9	10.4	1.9	6.2	1.5	4.7	3.2	12.8	3.2	3.3	0.6	0.0	1.3
출판	0.8	3.6	6.1	0.8	1.3	1.5	4.7	5.8	17.2	1.6	0.1	15.2	9.0	1.9	5.8	0.4	5.7	2.4	9.0	3.5	3.4	0.7	0.0	1.4
화학	0.9	2.6	7.0	1.0	1.4	1.8	3.9	5.1	15.9	0.9	0.1	12.0	9.2	1.6	9.7	0.5	4.8	2.9	12.1	3.4	2.9	0.4	0.0	3.7
조립 금속	0.5	2.5	7.0	1.0	1.4	1.6	3.3	5.6	15.3	1.1	0.3	13.0	9.5	1.8	8.0	0.8	4.8	4.0	11.8	3.7	2.9	0.5	0.0	5.5
기계	0.6	2.3	7.3	1.2	1.1	1.2	3.7	5.4	14.6	1.2	0.1	12.4	9.3	1.6	10.6	0.3	4.6	3.6	12.7	3.1	2.8	0.5	0.0	16.6
가구	0.8	1.6	7.3	0.9	1.1	1.3	2.2	5.5	15.5	1.2	0.1	13.6	10.3	1.5	7.6	0.6	7.2	4.2	10.7	3.5	3.1	0.6	0.0	1.3
전기	0.4	1.9	5.7	1.6	1.1	1.9	2.3	3.5	11.2	1.1	0.1	14.1	8.2	2.1	6.6	0.6	4.1	8.9	21.1	1.6	1.8	0.1	0.0	0.3
건설	0.7	2.1	5.4	1.0	1.2	1.7	3.5	5.5	16.1	1.2	0.2	16.4	10.7	1.3	4.8	0.9	4.7	4.0	12.1	3.5	2.9	0.6	0.0	14.1
도소매	0.9	2.0	5.0	1.0	1.3	1.4	3.4	5.4	16.5	1.4	0.1	16.7	11.6	1.7	4.7	0.4	3.8	3.0	11.4	3.7	3.9	0.7	0.0	10.3
숙박	0.6	3.0	6.1	1.3	1.3	1.6	3.9	5.6	15.8	1.9	0.1	13.9	10.9	1.8	6.3	0.4	3.7	3.1	11.2	3.3	3.8	0.6	0.0	1.6
운수	1.0	3.5	7.4	1.2	1.4	1.4	4.4	5.6	17.4	1.2	0.3	11.6	7.3	1.5	11.1	0.5	3.9	3.1	9.5	3.1	3.6	0.3	0.0	6.8
통신	1.2	1.5	17.2	0.3	1.1	0.4	6.6	4.0	13.3	0.9	0.1	14.9	6.5	1.4	2.2	3.1	7.8	2.3	8.9	2.7	3.4	0.3	0.0	0.5
금융· 부동산	0.6	2.9	7.3	1.1	1.2	1.5	4.0	5.8	17.5	1.1	0.2	14.0	8.8	1.3	7.7	0.4	4.6	3.1	11.0	2.7	3.0	0.4	0.0	5.7
정보임대	0.8	1.8	5.5	1.1	1.2	1.0	4.1	5.8	18.1	1.6	0.2	19.4	9.0	1.5	6.1	0.5	3.8	2.1	8.9	3.7	3.4	0.5	0.0	3.0
사회서비스	0.7	2.0	5.8	1.2	1.4	1.1	3.9	5.7	18.0	1.6	0.2	15.0	9.5	1.4	6.6	0.4	4.5	2.5	11.5	3.7	2.9	0.5	0.0	10.4
공공	1.0	2.1	4.7	0.7	1.2	1.3	3.7	5.1	14.2	1.1	0.1	15.3	10.0	1.4	5.6	0.7	3.9	3.7	11.7	9.0	3.1	0.6	0.0	3.5
보건	0.7	2.3	6.3	1.0	1.0	1.2	3.5	5.3	14.9	1.4	0.3	13.6	11.7	1.8	7.6	0.8	3.8	3.7	10.8	3.5	4.1	0.7	0.0	3.3
기타서비스	0.6	1.2	3.8	1.0	1.2	0.9	3.5	6.0	16.1	1.6	0.1	17.2	13.6	1.6	4.0	0.9	4.1	3.3	10.9	4.0	3.2	1.1	0.0	0.5
가사서비스	0.0	0.0	3.6	0.0	1.2	6.0	0.0	3.6	16.7	2.4	0.0	22.6	11.9	2.4	1.2	0.0	0.0	0.0	19.1	0.0	4.8	4.8	0.0	0.0
전체	0.8	2.4	6.3	1.0	1.2	1.4	3.7	5.5	16.0	1.2	0.2	14.2	9.7	1.6	7.7	0.6	4.5	3.3	11.7	3.6	3.1	0.5	0.0	100.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1995.7.~2002.1.

먼저, 산업업종별 퇴직의 전체에 대한 이동 전과 이동 후를 비교할 때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동 전·후 산업간의 근로자 비율은 동일하다.

중점 지역의 산업간 이동이 전국에 비하여 아주 현격한 차이로 특징들이 존재한다. 특징적 현상을 요약하면, 농림·광업, 섬유, 신발산업은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직업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기업 특유의 직업훈련만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산업이동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비전이 있는 산업으로 이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준다. 종이·목재제조업 퇴직자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제조업은 아닐지라도 통신업의 경우에도 단순노동력의 퇴직은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보인다.

제조업 중 화학, 기계 퇴직자는 화학, 기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화학, 기계 등의 기술은 생명력이 긴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으로 작용하는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이나 기계 및 컴퓨터 임대업이다. 이 업종 출신의 근로자는 기계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므로 기계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관련 기술을 요하는 기타사회서비스업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소매, 건설은 그 업종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만큼 노동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그 업종 나름대로의 전문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기타사회서비스업과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건설업 진출은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이다.

## 라. 중점 지역 이동<sup>12)</sup>에 나타난 특징

중점 지역에 대한 특징을 요약해 보면, 광주 지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아직 저숙련·저임금 유희노동력이 많이 존재하여 부산 지역으로의 이동의 경우에도 제조업 저임금 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업, 신발업에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등 생산직으로 취업하고 있어 광주의 저임 퇴직노동력이 부산의 저임금 부족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다 (표 12).

대구의 경우에는 섬유업으로부터 퇴직자가 30%로 주류를 이루어 섬유산업에서의 산업구조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뚜렷하지만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운수업, 기타사회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 비전문 기술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산에서 인천, 그리고 울산에서 서울로의 이동은 모두 기계제조업 퇴직자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숙련 생산직 근로자의 상향 이동으로 판단된다.

인천에서 대구로의 이동은 저임금 중소기업으로부터의 퇴직자가 대구의 생산직 인력부족 부분을 메우는 이동으로서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 저숙련 기능공 퇴직자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을 통하여 소득 및 근로조건이 하향을 방지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경남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은 경남 창원 지역에서의 기계제조업의 쇠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남 지역의 퇴직자가 경기 지역의 사양산업의 인력부족 직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중점 지역 이동에 대한 지역별 이동 테이블(표 10과 같은 형태)은 지면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보고를 생략한다. 원하는 독자에게는 언제든지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표 12〉 지역간 산업이동의 특징요약

분석대상	이슈	정책과제
6개 지역 전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광업, 섬유, 신발산업은 수요가 줄어들음. 직업훈련의 부족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적음.</li> <li>- 화학, 기계 퇴직자는 화학, 기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동</li> <li>- 도소매, 건설은 산업내 이동</li> <li>- 기타 사회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은 건설업 등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광업, 섬유, 신발,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등 단순노동력의 퇴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정책은 아주 세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li> <li>- 직업훈련에 대한 직종 및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이 연령, 성에 맞추어 선택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별 산업특성과 노동수요, 근로자의 통근가능 거리에 맞추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li> </ul>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의 저임금 유희노동력이 부산의 제조업 저임금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업, 신발업 등 생산직으로 이동</li> </ul>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유산업으로부터의 퇴직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여 섬유산업의 산업구조 변화가 강함을 시사</li> <li>-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되,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주로 이동(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등)</li> </ul>	
울산에서 인천으로, 울산에서 서울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제조업 퇴직자가 주류를 이룸. (숙련생산직 근로자의 상향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좀더 지역 특화된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노정됨.</li> </ul>
경남에서 경기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지역의 퇴직자가 경기 지역의 사양산업의 인력부족 직종으로 이동</li> </ul>	

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농림·광업, 섬유, 신발,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등 단순노동력의 퇴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정책은 아주 세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업훈련에 대한 직종 및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이 연령, 성에 맞추어 선택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별 산업특성과 노동수요 그리고 근로자의 통근가능 거리에 맞추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좀더 지역

특화된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노정된 것이다.

## IV. 결론

지역별 노동이동 동질성 분석은 지역별로 노동이동의 패턴이 아주 유의하게 서로 상이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평균값과 빈도 비율로 분석해 볼 때, 제조업 생산직 중소기업 퇴직 남자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지역이동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한편, 근속기간이 짧고 임금도 낮은 대기업 퇴직자의 미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이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분석 추정 결과를 보면, 연령, 학력, 근속기간의 지역이동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으나 임금수준 및 대기업 출신의 효과는 상당히 크며, 산업별로는 제조업, 직종별로는 생산직의 이동 경향이 강하다. 농업직은 비록 관측치 수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생산직보다 더 강한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이 농업개방과 관련하여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수도권의 대기업 출신 퇴직자는 여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출신 지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자기 지역 내 취업시 대기업 프리미엄은 없다. 즉,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업 출신이더라도 자기 출신 지역에서 직장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대기업 출신이라 하더라도 생산직의 경우 취업만 가능하다면 지역이동도 불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산업, 직종, 대기업 출신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이동을 통하여 취업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로짓분석 결과는, 대도시 지역은 대기업 출신의 경우 퇴직 하더라도 자기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없다. 산업별로는 대도시에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의 지역이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4개 도에서 나타난 지역이동의 특징은 경북과 전남의 경우 농업부문 종사자의 지역이동이 강하며, 제조업 생산직의 이동도 강하다. 전남의 경우, 임금수준을 볼 때 전라 지역은 80만원대로서 가장 낮은데, 결국 저임금 사무직이 특별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인문계 고졸 학력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남 지역에



서의 사무직 출신에 대한 직업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간 노동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6개 중점 지역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들 지역은 대부분 남성, 제조업, 생산직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자들이 지역이동하고 있는데, 광주에 임금이 더 낮으며, 서비스산업·서비스직종 출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어디로부터 이동하건 간에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직으로의 이동이 강하게 나타나며 임금수준도 더 낮아지는 반면, 서울로의 이동은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에서 서비스업 사무·판매직으로 이동하면서 임금수준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제조업 생산직의 저임금-저기술 근로자에 대한 직업탐색의 효율화와 성장산업으로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이 중점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중점 지역의 산업간 이동에서 나타난 특징은 농림·광업, 섬유, 신발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직업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기업 특유의 직업훈련만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산업이동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비전 있는 산업으로의 이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준다. 종이·목재제조업 퇴직자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제조업은 아닐지라도 통신업의 경우에도 단순노동력의 퇴직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제조업 중 화학, 기계 퇴직자는 화학, 기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화학, 기계 등의 기술은 생명력이 긴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으로 작용하는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이나 기계 및 컴퓨터 임대업이다. 이 업종 출신의 근로자는 기계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므로 기계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관련 기능을 요하는 기타사회서비스업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소매, 건설은 그 업종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만큼 노동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그 업종 나름대로의 전문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기타사회서비스업과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건설업 진출은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농림·광업, 섬유, 신발,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등 단순노동력의 퇴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정책은 아주 세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직종 및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이 연령, 성에 맞추어 선택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별 산업 특성과 노동수요 그리고 근로자의 통근가능 거리에 맞추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좀더 지역 특화된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 참 고 문 헌

- 강병구 외 2인. 『실업대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안산·시흥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1.10).
- 류기철, 「실업급여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 제47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pp.71~96.
- \_\_\_\_\_, 「지역노동시장연구(IV) -대구·경북지역-」.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8.3).
- 어수봉. 『한국의 노동이동』. 한국노동연구원, (1992).
- 이수영. 「주요공단 신규 구인·훈련조사 결과 보고」, 삶의질기확단 내부자료, (2000).
- 이희수 외.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개발 기구 설립, 산업연구원., (2001).
- 전병유.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동향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정인수 외. 『경기도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9).
- \_\_\_\_\_. 『지역별 실업탈출 확률 및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9.14).
- \_\_\_\_\_. 「향후 노동시장 정책연구의 방향과 실천」 mimeo(2001.8.22).
- \_\_\_\_\_. 「해외출장보고서(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노동연구원, (2002. 4.3~4.14).
- 정인수·전병유·임상훈. 『지역노동시장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세미나 자료집』. (2002.7) p. 109.
- \_\_\_\_\_. 『고용보험동향』 제7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2000. 봄).
- Cox, David R. “Regression Models and Life-Tables(with discussion)”. J. Ro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B34, Statist. Soc., May/Aug. (1972), pp.187~220.
- Juha Kettunen. “Labour Mobility of Unemployed Worker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2. (2002) pp.359~380.
- Kalbfleisch, John D. and Robert L. Prentice. *The Statistical Analysis of Failure Time Data*. NY: Wiley, (1980).

- Kiefer, Nicholas M. “Economic Duration Data and Hazard Func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6. pp.646~679.
- Lilien, David M. Sectoral Shifts and Cyclical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Aug.1982): pp.777-793.
- Mike Campbell. *Local Labour Market Management: Definition, Concepts and Instruments*. (28 Oct. 1996).
- Mood, M. Alexander, Franklin A. Graybill and Duane C. Boes.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 (Third edit) *Joint and Conditional Distributions, Stochastic Independence*. McGraw-Hill.
- OECD.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ies*. OECD: Paris, (1997).
- \_\_\_\_\_. *Decentralising Employment Policy: New Trends and Challenges*. The Venice Conference, (1998).
- \_\_\_\_\_.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y*. (1998b).
- \_\_\_\_\_. *The Local Dimension of Welfare-to-Work*. (1999).
- \_\_\_\_\_. *Loc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Policy Brief*, (2000).
- \_\_\_\_\_.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Territorial Economy*, (2001).
- \_\_\_\_\_. *Redefining Territories - The Functional Regions*. (2002).

<부표 1> 지역별 노동이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북	전남	충청	계(出)
서울	12.64 0	2.97 (0.37)	1.66 (-0.71)	1.97 (0.05)	0.69 (0.03)	1.00 (0.05)	0.66 (-0.17)	0.68 (0.03)	1.35 (0.05)	1.27 (-0.10)	5.52 (-0.06)	0.85 (-0.07)	0.61 (-0.07)	1.73 (0.06)	33.59 (-0.53)
부산	2.60 (-0.37)	0.87 0	0.51 (-0.14)	0.40 (0)	0.27 (-0.25)	0.22 (0.07)	0.22 (-0.03)	0.14 (-0.04)	0.42 (0.10)	0.33 (0.06)	1.77 (0.20)	0.20 (-0.06)	0.21 (0.02)	0.75 (0.20)	8.92 (-0.24)
대구	2.37 (0.71)	0.65 (0.14)	0.30 0	0.28 (-0.34)	0.15 (0.03)	0.19 (0.06)	0.19 (0.07)	0.13 (-0.04)	0.41 (-0.11)	0.26 (0.01)	1.41 (0.16)	0.21 (0.08)	0.14 (-0.01)	0.46 (-0.14)	7.16 (0.62)
인천	1.92 (-0.05)	0.40 (0)	0.62 (0.34)	0.33 0	0.07 (-0.01)	0.18 (0.05)	0.08 (-0.18)	0.09 (0.01)	0.23 (0.07)	0.20 (-0.04)	0.94 (0.10)	0.12 (0.03)	0.08 (-0.03)	0.25 (-0.01)	5.49 (0.25)
광주	0.63 (-0.03)	0.52 (0.25)	0.12 (-0.03)	0.08 (0.01)	0.04 0	0.05 (-0.01)	0.08 (0.04)	0.04 (0)	0.19 (0.10)	0.05 (-0.04)	0.34 (-0.16)	0.05 (0.01)	0.06 (-0.06)	0.10 (-0.04)	2.35 (0.01)
대전	0.95 (-0.05)	0.15 (-0.07)	0.13 (-0.06)	0.13 (-0.05)	0.06 (0.01)	0.05 0	0.05 (0.01)	0.04 (-0.01)	0.10 (0.01)	0.08 (-0.01)	0.41 (-0.01)	0.05 (0.01)	0.11 (0.06)	0.12 (0)	2.46 (-0.12)
울산	0.83 (0.17)	0.25 (0.03)	0.12 (-0.07)	0.26 (0.18)	0.04 (-0.04)	0.04 (-0.01)	0.04 0	0.05 (-0.01)	0.10 (0)	0.12 (0.02)	0.31 (-0.29)	0.06 (0.01)	0.08 (0.03)	0.10 (-0.01)	2.42 (0.05)
강원	0.65 (-0.03)	0.18 (0.04)	0.17 (0.04)	0.08 (-0.01)	0.04 (0)	0.05 (0.01)	0.06 (0.01)	0.03 0	0.09 (0.02)	0.07 (0)	0.30 (-0.11)	0.04 (-0.01)	0.07 (0.02)	0.10 (0.03)	1.94 (0.01)
경남	1.30 (-0.05)	0.32 (-0.10)	0.52 (0.11)	0.16 (-0.07)	0.09 (-0.10)	0.09 (-0.01)	0.10 (0)	0.07 (-0.02)	0.15 0	0.13 (-0.02)	1.02 (0.22)	0.09 (-0.02)	0.08 (-0.01)	0.25 (0)	4.39 (-0.06)
경북	1.37 (0.10)	0.27 (-0.06)	0.25 (-0.01)	0.24 (0.04)	0.09 (0.04)	0.09 (0.01)	0.10 (-0.02)	0.07 (0)	0.15 (0.02)	0.32 0	0.58 (-0.15)	0.13 (0.04)	0.09 (0)	0.26 (0.07)	4.02 (0.10)
경기	5.58 (0.06)	1.57 (-0.20)	1.25 (-0.16)	0.84 (-0.10)	0.50 (0.16)	0.42 (0.01)	0.60 (0.29)	0.41 (0.11)	0.80 (-0.22)	0.73 (0.15)	3.11 0	0.39 (0.03)	0.32 (0.03)	0.89 (-0.09)	17.40 (0.06)
전북	0.92 (0.07)	0.26 (0.06)	0.13 (-0.08)	0.09 (-0.03)	0.04 (-0.01)	0.04 (-0.01)	0.05 (-0.01)	0.05 (0.01)	0.11 (0.02)	0.09 (-0.04)	0.36 (-0.03)	0.05 0	0.05 (-0.02)	0.11 (-0.01)	2.35 (-0.08)
전남	0.68 (0.07)	0.19 (-0.02)	0.15 (0.01)	0.11 (0.03)	0.12 (0.06)	0.05 (-0.06)	0.05 (-0.03)	0.05 (-0.02)	0.09 (0.01)	0.09 (0)	0.29 (-0.03)	0.07 (0.02)	0.04 0	0.10 (-0.04)	2.09 (0)
충청	1.67 (-0.06)	0.55 (-0.20)	0.60 (0.14)	0.26 (0.01)	0.14 (0.04)	0.12 (0)	0.11 (0.01)	0.07 (-0.03)	0.25 (0)	0.19 (-0.07)	0.98 (0.09)	0.12 (0.01)	0.14 (0.04)	0.25 0	5.43 (-0.05)
전체 (入)	34.12 (0.53)	9.16 (0.24)	6.54 (-0.62)	5.24 (-0.25)	2.34 (-0.01)	2.58 (0.12)	2.37 (-0.05)	1.93 (-0.01)	4.45 (0.06)	3.92 (-0.10)	17.34 (-0.06)	2.43 (0.08)	2.09 (0)	5.48 (0.05)	100 0

주: ( )는 순유출입임.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유입이 2.97%이고 서울로의 유출이 2.60%이므로 순유입은 0.37%임.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7~2002.1.

## 〈부표 2〉 지역간 노동이동 순유출입 표준화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북	전남	충청
서울	0.000	0.0107	-0.0213	0.0015	0.0017	0.0013	-0.0050	0.0008	0.0013	-0.0031	-0.0017	-0.0019	-0.0021	0.0019
부산	-0.0404	0.0000	-0.0161	0.0001	-0.0282	0.0079	-0.0038	-0.0043	0.0106	0.0065	0.0226	-0.0067	0.0024	0.0021
대구	0.1000	0.0201	0.0000	-0.0480	0.0050	0.0075	0.0089	-0.0050	-0.0150	0.0001	0.0219	0.0109	-0.0009	-0.0195
인천	-0.0092	-0.0001	0.0626	0.0000	-0.0020	0.0076	-0.0340	0.0005	0.0120	-0.0087	0.0182	0.0052	-0.0050	-0.0005
광주	-0.0255	0.1074	-0.0153	0.0046	0.0000	-0.0034	0.0174	-0.0025	0.0421	-0.0170	-0.0677	0.0046	-0.0251	-0.0179
대전	-0.0179	-0.0288	-0.0219	-0.0170	0.0032	0.0000	0.0028	-0.0020	0.0048	-0.0020	-0.0028	0.0036	0.0252	0.0024
울산	0.0700	0.0140	-0.0265	0.0774	-0.0169	-0.0029	0.0000	-0.0041	0.0033	0.0082	-0.1180	0.0062	0.0107	-0.0024
강원	-0.0149	0.0200	0.0185	-0.0015	0.0030	0.0025	0.0051	0.0000	0.0113	0.0000	-0.0561	-0.0082	0.0108	0.0144
경남	-0.0107	-0.0216	0.0246	-0.0150	-0.0225	-0.0027	-0.0018	-0.0050	0.0000	-0.0036	0.0503	-0.0041	-0.0020	-0.0006
경북	0.0260	-0.0144	-0.0002	0.0119	0.0099	0.0012	-0.0049	0.0000	0.0039	0.0000	-0.0370	0.0106	0.0012	0.0173
경기	0.0033	-0.0116	-0.0090	-0.0057	0.0091	0.0004	0.0163	0.0062	-0.0127	0.0085	0.0000	0.0016	0.0016	-0.0048
전북	0.0277	0.0255	-0.0332	-0.0123	-0.0046	-0.0038	-0.0063	0.0068	0.0076	-0.0183	-0.0119	0.0000	-0.0068	-0.0051
전남	0.0345	-0.0105	0.0033	0.0134	0.0028	-0.0297	-0.0124	0.0100	0.0043	-0.0023	-0.0134	0.0076	0.0000	-0.0158
충청	-0.0119	-0.0364	0.0257	0.0005	0.0077	-0.0011	0.0011	-0.0051	0.0005	-0.0128	0.0154	0.0022	0.0060	0.0000

주: 1) <부표 1>에 나타난 순유출입을 지역별 노동력의 크기로 나눈 표준화값임.

2) 지역별 노동력의 크기로 표준화한 순유출입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0.00017과 0.0223임.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7~2002.1.

## **Interregional Labor Mobility**

InSoo Jeong

This study on interregional labor mobility based on detailed observ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DB produc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logit analysis using interregional mobility as a dependent variable revealed that wage level and large corporate employment made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ision to move to another region, and by industry and occupation, manufacturing industry and production-related jobs showed the highest mobility respectively. Agriculture sector, although smaller sample was drawn, showed higher mobility tha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bear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in light of the opening of local agricultural sector. Logit analysis on metropolitan areas and small cities/rural areas indicated that those resigned from large corporate in metropolitan areas had a high possibility of re-employment, whereas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large corporate premium' didn't exist in the job market. By industry,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ectors showed strong labor turnover in metropolitan areas. The city of Kwangju with redundant unskilled and low wage workers across the industries supplied much needed low wage workers to Busan in the industries including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textile industry and shoe manufacturing as low-level technicians or laborers. In other words, unemployed low-wage workers in Kwangju filled in low wage positions in Busan, where the supply of such workforce was relatively low. In the case of Daegu, 30% of the unemployed consisted of ex-workers from textile industry, indicating that the textile industry has been undertaking substantial restructuring efforts. In addition, overall labor population has been moving from manufacturing sector toward service sector. In particular, labor mobility was

more evident in transportation, other social services and other services where professional skills were relatively less important.

Key Words : interregional labor mobility, logit analysis, metropolitan areas industry, unskilled workers, low-wage workers, redundant workers, manufacturing, service sector, textile industry